

**PEOPLE**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31사단 임영문화제서 홍보**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22일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시행하는 올해 첫 현역병 임영문화제에 참여해 임영장정 및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현역병 임영문화제는 군 복무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임영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축제다. 문화행사를 통해 임영자와 가족들에게 ‘감사와 소통의 시간’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는 마스코트인 ‘연부장’ 인형탈을 쓰고 관심을 끄는가 하면, 제도에 대한 퀴즈풀기 이벤트, 리플릿과 홍보물품 배부 등 임영자와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를 펼쳤다.

설명진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장은 “앞으로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대촌농협****중소형 농기계 무상점검·수리행사**

대촌농협은 최근 농협 본점 주차장에서 ‘중소형 농기계 무상점검 및 수리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합원들이 겪는 농기계 수리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차질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트랙터, 예초기, 동력분무기 등 150여대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무상 점검과 수리비 일부 지원이 이뤄졌다. 농기계 업체와 협찬과 전문 정비 인력의 참여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점검이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은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한형 대촌농협 조합장은 “영농철에 꼭 필요한 무상점검 및 수리행사를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조합원들의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 동부경찰 금남지구대****주택가 야간 중점 합동순찰**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와 계림1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21일 오후 계림동 주택가와 소상공인 1인 업주 상가를 대상으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안전한 동네를 만들고 주민의 치안에 대한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거리를 다니며 가로등, 방범 시설물 등 고장 여부를 확인했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순찰활동에 참여한 자율방범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l235@gwangnam.co.kr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미사’ 광주·전남서도 열린다****26일 오전 중 140여개 교구 본당서****공식분향소 주한교황대사관 등 마련**

전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추모 미사가 광주·전남 140여개 본당에서 열린다.

22일 전주교 광주대교구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 시간) 선종한 교황의 추모 미사가 오는 26일 오전 중 각 교구 본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광주대교구는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상임위원회 논의의 결과에 따라 별도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추모 미사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주교회의는 추모 미사는 교구별로 갖고 각 교구 주교와 성당 내 분향소 설치에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공식 분향소는 주한 교황대사관과 서울대교구



22일 서울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교와 명동 대성당 지하 성당에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부터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21일 애도문을 통해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시며 세계 평화를 위해 온몸으로 일하시던 교황님께서 하느님 품에 안기셨다. 프란치스코 교

황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끔찍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며, 희생자는 물론 유가족과 더 넓게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위로하셨다”면서 “한국 천주교회의의 모든 구성원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뵈 수 없음을 슬퍼하면서도 주님 품 안에서 편안히 쉬실 교황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보내 드린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래 정치·종교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평화와 화합, 공존의 씨앗을 뿌렸던 종교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2017년에는 로힝야족 추방으로 ‘인종청소’ 논란이 불거진 미얀마를 찾았고, 2019년에는 무슬림 국가인 모로코도 방문했다.

2021년에는 2000년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이라크 땅을 밟아 전 세계적인 시선을 끌었다. 교황은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이라크 북부 도시들을 찾아 전쟁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래 공식 석상에서 거의 빠짐없이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이듬해 5월에는 마테오 주피 추기경을 평화 특사로 임명해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중재 노력을 이어갔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은 오는 26일 거행될 예정이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전남도, 인도네시아 현지여행사 초청 팸투어****동남아 관광객 대상 호남권 관광 상품 개발 본격화**

전남도와 전남도관광재단은 동남아 관광시장 다변화 및 관광객 유치에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21일부터 22일까지 호남권 관광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호남권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로, 광주시관광공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됐다. 인도네시아 현지 주요 여행사와 상품 운영사인 보문세 여행행사를 포함해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전남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관광상품 구성을 논의했다.

주요 방문지로는 여수 해상케이블카와 이순신광

장,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이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전남 특유의 풍부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체험형 콘텐츠에 큰 만족을 나타냈으며, 특히 순천만 일대의 생태환경은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관광 요소”라는 호평을 받았다.

오는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광주·전남·전북 연계 관광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인천국제공항 입국을 기점으로 호남권에 체류하는 상품 구성으로 기획 중이다.

이를 통해 호남권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시장의 방한 수요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8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전남도와 전남도관광재단은 동남아 관광시장 다변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21일부터 22일까지 호남권 관광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최근 K-콘텐츠와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다. 전남도는 이러한 시장 특성에 주목해 차별화된 자연·문화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현지 여행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관광재단 김영선 대표이사는 “전라남도

의 아름다움을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팸투어, 현지 홍보, 매체 활용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며, “방문객들이 전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감성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우치공원-전남대 수의대·동물병원, 동물복지 협력****동물원 전문진료체계 구축·종보전 연구·수의학 교육 강화**

광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와 전남

대 수의과대학, 전남대동물병원은 지난 21일 오후 전남대 수의과대학에서 ‘동물복지 향상 및 수의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세 기관은 동물원 동물의 복지 향상과 수의학 연구·교육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우치동물원 동물의 질병

진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 의료 자원 제공 및 의료장비, 진료기술 지원과 정보 교류, 종 보전, 질병 등 수의학 관련 공동연구 수행, 수의학 교육과 실습 기회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우치공원은 전남대 수의과대학의 실험실 및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동물의 질병 연구와 종 보전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전남대동물병원의 각 전공과별 전문의료 자원과 보유한 의료장비를 기반으로 동물의 전문 진료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치공원은 수의과대학 학생

들에게 동물원 현장을 활용해 다양한 동물 종에 대한 진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수의학 인재들의 임상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남대학교동물병원은 맹수류, 해양동물, 파충류, 조류 등 다양한 종의 동물 진료 사례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이번 협약은 동물원 동물의 전문적인 진단 체계 구축, 종보전 연구, 수의학 교육 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해 동물복지 및 수의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목포 목상고등학교와 덕인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PM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PM 교통안전캠페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목포 목상고등학교와 덕인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PM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증가하고 있는 PM(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지자체 등을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PM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자세대 이동수단으로 편의성이 우수하지만 최근 10~20대를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과 관련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

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공단 측은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과 안전운행 수칙, 무면허 운전에 대한 위험성 및 처벌 등을 교육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정은철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번 교육으로 이용자들에게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한 자동차에 준하는 교통수단임을 알리고 나아가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한 PM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시동구새마을회, 산불 피해 복구 성공 전달 광주시동구새마을회(회장 김대영)는 최근 새마을협의회(회장 기영호)·부녀회(회장 박미숙)·작공장협의회(회장 김길문)·문고지부(회장 주정주)와 함께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인해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성공을 전달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새마을회



새마을문고광주북구지부, 무료도서 나눔행사 새마을문고광주북구지부(회장 오미숙)는 최근 광주 솔로몬로파크에서 무료도서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법페스티벌에 방문하는 아이들의 독서문화 함양과 미래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새마을문고광주북구지부